



NEARBY CITY

앙카라

해발고도 850m에 이르는 아나톨리아 고원에 건립된 수도에서 터키 여성의 뿌리를 발견하다.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

앙카라성Ankara Kalesi 남부에 위치한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Anadolu Medeniyetleri Müzesi은 구석기 시대부터 히타이트, 프리지안, 우라르티안,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비잔틴, 셀주크, 오스만 시대를 아우르는 연대별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기원전 5750년, 당대 원주민들은 여성을 생명과 연관된 영적 존재로 여겨 그 형상을 석상으로 만들어 섬겼다. 근엄한 자세로 표범 두 마리를 거느린 초기 여신상을 살펴본다. 다리 사이에 새겨진 동근 모양은 갓 태어난 아기의 머리 혹은 조상의 두개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아느트카비르

터키공화국의 창립자인 아타튀르크의 영묘이며, 반대편에는 두 번째 대통령인 이스멧 이뇌니İsmet İnönü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다. 아느트카비르Anıtkabir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터키 지역의 한 면을 차지하기도 했다. 1960년에는 내부에 아타튀르크 박물관을 마련하고 그의 소장품과 옷장 등을 전시했다. 통굴처럼 깊은 박물관 한편에 아타튀르크가 여성의 인권을 고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간을 기록한 아치형 공간도 자리한다. 1925년 복장 개혁을 통해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체조하는 여학생들의 사진을 볼 수 있다.

대국민 의회당

입구에 '터키 대국민 의회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라는 글귀를 내건 벽돌 건물 안으로 들어선다. 아타튀르크는 구 오스만의 잔재를 털어내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울 목적으로 여러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국민들에게 주권을 상가시키던 것도 이 시기과 맞물린다. 2층에서 최초로 의회에 출입한 여성 의원들의 사진과 이력을 열람해보자. 아타튀르크가 탁월한 국회의원이란 언급했던 하티 치르판Hatı Çırpan은 교향인 앙카라 북서부카흐라만카잔Kahramankazan에 있는 생기가 박물관으로 보존되고 있다.

제로모던

2010년, 옛 철도 공장 자리에 개관한 제로모던Cermodern은 작은 테마파크와도 같다. 인근에 있는 대관람차와 분수 등이 특유의 판타지적 감성을 고조시킨다. 제로모던에서는 터키를 포함해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핀란드, 스페인 등 8개국의 여성 아티스트가 '전통 짜기, 미래 짜기'라는 주제로 섬유 예술을 선보인다. 그간 섬유는 뜨개질, 재봉, 자수 같은 여성의 일감으로 격하되어 왔으나 인간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하나인 '물'이 주는 근원적 직물이기도 하다. 작가들이 한 뭉 한 뭉 직조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숨겨진 의도를 탐구해보자.

CSO 콘서트홀

'프레지덴실 심포니 오케스트라 콘서트홀'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독특한 삼각형 외관과 최대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콘서트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4월에는 해당 교향악단에서 첫 여성 지휘자가 탄생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시벨 아이한 바이어Sibel Ayhan Bayer는 플루트를 전공했으며 2년 동안 부르사 지역에서 지휘 연습을 해왔다고 한다. CSO 콘서트홀에서는 관현악 연주 외에도 스페인이나 그리스를 비롯한 다국적 가수들의 재즈 공연 등 광범위한 장르를 접할 수 있다.



1925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아나톨리아 문명의 유물과 유적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아나톨리아 박물관 앞을 지나고 있다.



앙카라성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야경이 현대의 과거를 아우른다.

TRAVEL WISE

이스탄불

가는 법

터키항공에서 인천-이스탄불 직항편을 주 4회 운항한다. TK090편과 TK091편 모두 밤에 출발하며, 약 1시간 소요된다. turkishairlines.com

맛볼 곳

흰튼 이스탄불 보스포루스는 도심과 해협을 아우르는 호텔이다. 도보로 20분이면 도심 골목과 돌이바흐제 근전에 닿는다. 부대시셀로 테니스코트, 터키식 목욕탕, 야외 수영장 등이 있어 숙소 안에서도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로비 옆 아르프 갤러리에서 그림을 둘러봐도 좋다. hilton.com

맛볼 곳

목가적인 테라스에 앉아 비단버블을 만끽하며 식사를 하고 싶다면 라시베르르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를 추천한다. 터키식 소시지, 과일에서 따온 초콜릿, 유가농 꿀, 수제 치즈 등을 전통식으로 조리해 싱그러운 맛을 선사한다. 피클레 레스토랑은 역사 유적지인 갈라타 타워와 맞닿은

곳으로 유명하다. 시그니처 메뉴로 리소포가 손꼽히며 비프볼링턴 또한 일품이다. 직원들의 장난스러운 미소는 달 회관에서 구워낸 향들 곁들인 정통 케밥을 맛보고 싶다면 합디 레스토랑으로, 분위기 있는 루프톱 바를 찾는다면 이자카 테라스로 향하자. lacivertrestaurant.com, firuzende.com, hamdi.com.tr, izakaterace.com

앙카라

가는 법

이스탄불에서 터키항공 국내선을 타고 1시간 남짓이면 앙카라에 도착한다. 짧은 비행에도 간단한 기내식이 포함된다. turkishairlines.com

맛볼 곳

화려하게 꾸민 로비가 인상적인 JW 에리어 호텔 앙카라는 바구 국가대표들이 머무는 5성급 호텔이다. 초식 때는 원하는 과일을 즉시 주스로 갈아 주며, 여러 종류의 꿀과 우유의 지방을 균형 크림치얼 만든 윤식인 카이마크aymak 등을 내놓는다. marriott.com

맛볼 곳

올르다스 케밥에서 지역색이 가미된 케밥을 맛보자. 일반적인 케밥과 달리 얇게 저민 양고기에 뜨거운 보야보스스와 녹인 버터를 올린다. 한술 부스러워진 맛이 터키식 샐러드와도 잘 어울린다. 오르한 올르다스Orhan Uludağ 일기가 비빔을 지켜나가는 중이다. 진하고 달콤한 디저트를 선보이는 디안 레스토랑에서 영어리본을 넣은 할바halva와 베이피자르Beypazarı 지역에서 공수한 홈메이드 바클라바baklava를 주문해보자. 앙카라성으로 가는 경사진 길을 오를 권력을 얻을 것이다. 양고기에 물었다면 브릴리에 레스토랑에서 휘산급 늘어 요리를 맛보는 건 어떨까. uludagkebap.com.tr, divan.com.tr, trilye.com.tr

맛볼 최적기

봄과 여름을 오가는 4월에서 7월 초가 여행하기 좋다. 한국의 여름 날씨와 비슷한데 평균 18°C, 최고 35°C이다.

더 많은 정보

터키문화관광부 ktb.gov.tr